

협회, '상해시 푸둥신구 외상투자기업협회' 등과 MOU 체결



▲ 상해시푸둥신구외상투자기업협회 후지엔후아 비서장(좌측 두번째)와 벤처기업협회 오형근 부회장(우측 두번째)이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지난 10일과 11일 상해시 주재 유력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 우리 벤처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회는 11일 '상해시 푸둥신구 외상투자기업협회(비서장 후지엔후아)' 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해시 푸둥신구 외상투자기업협회' 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 회원사가 상해 푸둥신구에 진출하거나 투자할 경우 '투자기업협회' 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양국 하이테크 기업들 사이의 교류협력과 상호 시장진출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상해시 푸둥신구 외상투자기업협회' 는 상해지역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들의 대표단체로, 협회 직원으로 공무원들이 파견되는 등 정부 차원의 전격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외상투자기업협회는 외국투자기업의 활동 지원은 물론 상해지역 마켓플레이스에 신규 진출하는 기업들에 시장정보, 행정 서비스,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지난 10일 '한양대 상해 IT비즈니스센터(센터장 채욱)' 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회와 '한양대 상해 IT비즈니스센터' 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의 회원사와 '상해IT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간의 교류협력은 물론 양 단체간 정보공유를 통한 비즈니스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센터로부터 중국 상해지역 비즈니스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회원사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

협회 오형근 부회장은 "중국 진출을 원하는 벤처기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벤처기업의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두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IT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최대 상업도시인 상해를 전략적 거점으로 하여 성공적인 중국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벤처기업협회 오형근 부회장(좌측 두번째)과 한양대상해IT비즈니스센터 채욱 센터장(우측 두번째)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제5차 벤처CEO포럼 개최

제5차 벤처CEO포럼은 '벤처기업의 정체성 및 혁신' 이라는 주제로 벤처리더스클럽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 개 요

- 일 시 : 2003. 11. 20(목) 16:00 ~ 18:20
- 장 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벤처기업 CEO 50명(선착순)
- 참 가 비 : 무료

■ 문의 및 참가신청

- 신청방법 : E-mail (soyoung0404@kova.or.kr)승부
- 문 의 : 정책연구실 박소영(02-6009-4100, 내선 402)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진 행
15:30 ~ 16:00	Registration	
16:00 ~ 16:10	Opening Remark	사회자
16:10 ~ 16:20	회장 인사말 및 연구진 소개	
16:20 ~ 17:40	연구 결과 발표	연세대학교 한준 교수 서울대학교 장덕진 교수 연세대학교 박찬웅 교수
17:40 ~ 18:10	토론 or 패널 토의	
18:10 ~ 18:20	Closing Remark	사회자

협회, '2003 대한민국벤처창업대전' 참가

협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에서 개최된 '2003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에 참여했다.

미래 청년 벤처기업가들의 우수한 창업아이템과 기술이 전시되는 국내 최대 창업행사인 '2003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에는 학생과 일반 등 모두 256개 팀이 참가해 다양한 창업 아이템과 기술을 선보였다.

협회는 KOVA 부스를 설치, 창업을 준비하는 벤처기업가들에게 협회의 다양한 활동과 지원서비스를 소개했다.



협회, 제4차 벤처윤리위원회 개최



협회는 지난 10월 29일 벤처윤리위원회 김일섭 위원장(이화여대 부총장) 외 4명의 윤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벤처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벤처윤리위원회에서는 4월초부터 진행되어온 윤리경영사례연구 및 윤리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진행경과를 보고받고 향후 일정에 관해 논의했다.

윤리위는 벤처윤리경영사례를 토대로 협회 행사와 연계하여 11월과 12월 2회에 걸쳐 윤리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기업 윤리경영 확산방안을 위해 2004년도에는 Clean Venture와 윤리경영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 협회 장흥순 회장은 지난 11월 7일 19시 부터 1시간 반 동안 이화여대 경영대학원의 초청을 받아 '신성장산업과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 협회는 지난 3일 한국기술센터 16층 회의실에서 벤처기업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벤처넷(www.venturenet.or.kr)개발 및 운영을 담당할 사업자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